



KCC, 완주군 이웃돕기 성금 5000만원 기탁

(주)KCC(대표이사 정재훈)가 완주군에 이웃돕기 성금 5,000만 원을 기탁했다. 5일 완주군은 최근 (주)KCC가 방문해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이웃돕기 성금을 전달해왔다고 밝혔다. 전달식에는 김태근 공장장과 김우중 사무팀장,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유병실 사무처장이 참석했다. KCC는 '함께 만드는 더 좋은 세상'이라는 사회공헌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워 여러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완주군에는 지난 2020년도부터 이웃돕기 성금 기부를 이어오고 있으며 이번에 기탁한 성금 5,000만 원을 더해 총 4억 원을 기부했다. KCC 관계자는 "앞으로도 꾸준히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며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완주=염재복 기자

‘정음을 위케이션의 성지로’

정읍시, 위케이션 주민교육 수료식 가져

정읍시가 농촌체험형 위케이션의 성지로 거듭나고 있다

시는 지난 1일 '농촌체험형 위케이션 성지 정읍만들기' 기초교육과정 수료식을 갖고 34명에게 수료증을 수여했다.

시는 지난해 9월 RIS 지역혁신 자율과제 공모사업 선정돼 내장산 권역의 농촌체험관광 협의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RIS 지역혁신 공모사업은 대학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지역현안 해결과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는 전주대학교와 컨소시엄을 통해 올해 총 사업비 3억 2,500만원(도비 2억 2,700만원, 시비 980만원) 규모로 '농촌체험형 위케이션 성지 정읍만들기'를



추진하고 있다. 위케이션(worcation)이란 '일(work)'과 '휴가(vacation)'의 합성어로, 근로자가 휴가장에서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광휴양을 병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농촌체험형이란 근로자가 업무종료 이후 여가시간에 농촌과 농업체험, 전통문화체험, 생태·산림관광, 농가맛집 농촌민박, 농촌축제, 현지 주민과의 교류 등 다양한 농촌체험을 할 수 있도록 위케이션에 연계한 것이다.

이학수 시장은 "정읍은 서울에서 KTX로 1시간 30분 이면 올 수 있고 내장산 국립공원과 많은 역사문화자원을 보유한 곳"이라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남원시치매안심센터, 사랑의 떡국 나눔행사

남원시치매안심센터(센터장 한용재)에서는 설을 맞아 명절이면 고립감, 외로움으로 힘들어하는 치매안심마을 지역인 노암동 왕정동 금동에 거주하는 독거치매환자 대상으로 '사랑의 온기터하기'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5일과 6일 2일간 치매안심마을 지역에 거주하는 독거치매환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행사에는 치매안심센터 전문요원 2인 1조로 개별 방문 치매약 복용관리, 사례관리 등 전문적인 치매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담을 통해 건강상태 확인 및 정서적 지지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시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온기나눔 캠페인과 연계해 독거 치매환자들에게 따뜻한 마음이 가득한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떡국, 김치, 참치캔 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용재 보건소장(치매안심센터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서 대상자들이 각 가정에서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치매환자 대상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차별 없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김제시 자율방범연합대, 출범식·연합대장 취임식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지난 3일 농업인 교육문화 지원센터에서 김제시 자율방범연합대 출범식 및 연합대장 취임식을 가졌다고 5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지난해 4월 자율방범대가 범법단체로 지정된 후 연합대를 재구성해 자율방범대 대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율방범연합대의 화합과 단결을 다짐하고 지역의 봉사단체로 거듭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날 행사는 최호천 연합대장이 새로 취임해 "튼튼한 민생치안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며 김제시 자율방범연합대의 갑진년 청룡의 해 희망찬 포부를 밝혔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우리 지역의 든든한 안전 지킴이로서 힘을 모아준 자율방범대의 노고에 감사하고, 자율방범대법 시행이 전환점이 되어 자율방범대가 치안 주체로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주 가온클럽, 서신동 어르신 대상 떡국나눔 봉사

국제와이즈멘 한국 전북지부 전주지부 가온클럽에서는 지난 3일 서신동 관내 어르신들을 모시고 떡국 나눔 봉사를 가졌다

이날 봉사에 참여한 최영심 전 전북도의원과 회원들은 오전 9시부터 떡국 재료 준비와 악기연주 및 오락시간을 가지며 갑진년 새해 건강을 기원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른 아침부터 떡국 봉사를 위해 참여해준 가온클럽과 적



십자 회원들은 새해에도 주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소외된 이웃을 위해 봉사를 실천하는 한 해로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한편 최영심 전 도의원은 의 일환으로 봉사를 하던 연세봉사

를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으며, 2년째 김장봉사를 하여 소외된 이웃을 위해 지역봉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김재훈 기자



정읍시의회, 설명절 전통시장 장보기 캠페인 가자

정읍시의회(의장 고경윤)는 5일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설맞이 장보기 캠페인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장 상인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지역경제 회복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이번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캠페인에서는 온누리상품권으로 저렴하고 신선한 농수축산물과 생필품을 구입하였고,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물품 전달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따뜻한 이웃 사랑을 실천하였다.

고경윤 의장은 "금년 캠페인으로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와 지역경제 회복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지역산품 살리기에 동참하고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거성농자재 임춘자씨, 무주군에 장학금 기탁

무주군은 지난 2일 거성농자재 임춘자 사장이 무주군교육발전추진재단에 장학금 2백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임춘자 사장은 "도전과 용기를 상징하는 청룡의 해 우리 지역 학생들의 미래를 향한 도전에 힘을 보태게 돼 흐뭇한 마음"이라며 "적은 금액이지만 애정 듬뿍 담은 장학금이 우리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키우는 든든한 지원군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무주군에 따르면 거성농자재는 무주 지역업체로 농업융합 기계와 장비 도매업을 하며 매년 불우이웃 돕기와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지원에 앞장서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읍, '얼굴없는 천사' 쌀 30포 기탁... 14년째 이어져

진안군 진안읍(읍장 곽동원)에 얼굴 없는 천사의 따뜻한 손길이 14년째 이어지고 있어 훈훈함을 안겨주고 있다. 5일 익명의 기부자가 진안읍 행정복지센터에 쌀 20kg 30포(165만원 상당)를 보냈다. 올해도 기부자는 쌀을 전달하면서 "힘이 일러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 꼭 사용해 달라"고 밝혔다.

곽동원 읍장은 "이번 설도 잊지 않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선물을 베풀고 있는 익명의 기부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보이지 않는 손길로 매년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기부자의 고귀한 마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후원해주신 쌀은 소중하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읍은 기부자의 뜻에 따라 설 명절 전에 지역 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독거노인, 한부모, 장애인 가구 등 취약계층 30세대에 전달할 예정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층 30세대에 전달할 예정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기업인 정명오 대표, 순창에 고향사랑 최고액 기부

순창군은 5일 순창 출신 기업인 정명오씨가 고향사랑기부금 개인 최고액인 5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정명오씨는 순창군 팔덕면 장안마을 출신으로 경남 합천군에서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정명오 대표는 평소 어려운 이웃에게도 관심이 많아 2021년 아들 정진결씨와 함께 합천군에 이웃돕기 성금을 기탁하는 등 나눔을 실천해왔다.

이날 기탁식에서 정명오 대표는 "내 고향 순창의 발전을 응원하는 마음에서 기부에 동참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멀리서나마 순창군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고향을 잊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을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소중한 기부금으로 '군민 모두가 행복한 순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무주소방서, 공동주택 관계자 간담회·소방안전교육

무주소방서가 지난 2일 공동주택 15개소 아파트 관계인들을 대상으로 간담회 및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일했다. 최근 공동주택 화재로 인적, 물적 피해가 크게 발생되었기 때문이다.

최근 5년간 전북의 공동주택 화재현황을 분석한 바 사상자는 총 66명(사망5, 부상61)으로 사망자 5명의 경우 화재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50세 이상 고령층으로 나타났다. 사상자의 대다수(31명)가 피난중에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사상원인은 연기, 유독가스 흡입 74%이며 사망자 모두가 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이에 따른 안전교육 내용으로는 △우리 아파트 대피계획 수립하기 △불나면 살피서 대피 집중 홍보 △피토품(욕상출입문, 경량칸막이 등) 배부 △아파트 피난전매주일(입주자용, 관리자용) 배부 등이다.

무주소방서 관계자는 "아파트 화재 시 무작정 대피보다는 살피서 대피가 필요하다"라며 "화재시 피난수칙을 숙지하여 피해를 예방하자"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순창소방서 의용소방대, 비인가 사회복지시설 위문

순창소방서(서장 이상원)는 의용소방대와 합동으로 5일 설명절을 맞아 공교한 순창군의용소방대연합회장을 비롯한 대원 20여명은 순창군 비인가 사회복지시설 2곳(금곡면 소재 로얄나무, 동계면 소재 주향의집)를 방문하여 생활필수품(각 50만원 상당)을 전달했다.

이번 방문은 설명절을 맞이하여 이웃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순창소방서의용소방대 대원들의 자발적인 뜻이 모여 이루어진 자리라 더욱 의미가 깊다.

생활품 전달과 더불어 소방공무원이 사회복지시설 내의 겨울철 화재 취약요인을 점검하고 관계자에게 화재예방 및 유사시 대피요령 등 안전에 꼭 필요한 사항을 교육하는 시간도 가졌다.

시설관계자는 "각박해져 가는 사회에서 의용소방대원들의 선행은 주변에 충분히 분 발아야 할 귀감거리"라며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과 무의미 노인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더욱 필요하다"고 말했다.

순창소방서의용소방대 연합회 공교한 남성회장은 "따뜻한 설명절이 될 수 있게 순창소방서 의용소방대 연합회에서 실시한 정성을 모았다. 작은 정성이지만 서로 나누며 다 같이 즐거운 명절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